

열린우리계-구 민주계 공천 갈등

민주 '계파 전쟁' 시작됐다

시·도지사는 손학규-정동영 대리전 양상

6·2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계파 간 갈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열린우리계에서 (구)민주계 기초자치단체장의 재공천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통합 후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4면>

3일 광주·전남 정치계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은 물론, 광주 동·서·북·광산구, 담양·구례군, 여수·순천·광양시 등에서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대권주자 사이에 또는 열린우리당 출신과 (구)민주당 출신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대리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이용섭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양형일 후보는 정동영 의원 직계로 분류된다.

또 전남도의 경우 주승용 의원이

정동영 의원 쪽에 가까운 반면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손학규 전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광주 동구와 서구의 경우 광주시의원 후보 공천, 광주 북구 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현 시장들을 후보 공천 등을 놓고 계파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시의 경우 열린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원(구)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현 시장들을 압박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역은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시장의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공천을 견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정세균 대표 등 주류 측에서 전라지역으로 분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계인 김성곤·주승용 의원도 이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계인 오현섭 시장 측은 여수가 전라지역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현 시장을 배제하고 특정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일 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주계의 박주선 최고위원이 여수에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의 경우도 민주계인 현 노관규 시장이 압도적 지지도를 보이자 서갑원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후보들이 단일화를 선언, 노 시장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 수천 명의 시민과 당원 앞에서 노 시장의 역점 사업인 정원박람회 성토하는 등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광양도 지난달 상반기 9명의 지방의원 후보가 열린우리계인 우윤근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서종식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계의 이상용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통합 정선은 사라지고 계파 전쟁이 시작될 느낌"이라며 "상대편에 대한 흠집 내기보다는 정당한 정책대결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봄맞이 청소 즐거워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과 중흥1동 부녀회원들이 3일 오전 광주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봄맞이 청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교생 학업성취도 전국 2위

2년 연속...전남 초중고 학력은 최하위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고교 1학년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광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의 초중고 학력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이 그나마 성과다. <관련기사 5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총 19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업 수준에 학생들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평가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눠 학생 비율을 비교했

며,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6·중3은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구분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1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93.9%)와 과학(68.4%)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수학(74.1%)과 영어(77.2%)는 제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회과목만 46.7%로 7위에 머물렀다. 5개 과목을 통합한 보통 이상 성취수준에 선 72.1%로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66.8%)보다 5.3%나 오른 것이다.

광주는 또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영어와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5.8%로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수학도 60.8%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국어는 8위, 사회는 11위, 과학은 14위에 머물러 5개 과목 통합 순위는 중위권(9위)을 유지했다.

5개교과 전체 보통이상 비율 (단위:%)

시·도	초6	중3	고1
광주	82.5	65	72.1
전남	79.1	56.4	63.1
서울	83.6	60.7	57.9
부산	86.2	63.8	67.1
대구	83.1	69.1	67.7
인천	79.6	67.5	65.8
대전	87.4	68	68.6
울산	83.6	67.5	62.9
경기	79.2	61.8	59.3
강원	87.5	69.4	68.2
충북	88	67.9	68.3
충남	84.1	63.5	64.1
전북	79.5	63	66.9
경북	82.5	67.7	67.5
경남	84.3	62.8	61
제주	85	71.5	73.2

학교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전남은 전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비율에 선 고1의 경우 전년 7.08%에서 5.5%, 중3 11.46%에서 10.2%, 초 6은 2.02%에서 1.9%로 낮아지는 성과를 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광주 고교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5만1천원으로 서울(37만 7천원)의 절반 이하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제2 컨벤션센터 짓는다

지경부 심의 통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3일 지식경제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유일한 전시컨벤션센터인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규모의 한계로 유지하지 못했던 국내·외 전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날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향후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경부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제2컨벤션센터는 DJ센터 인근 자유공원 내에 국비 765억원 등 사업비 1천53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국제회의장 3천석, 전시장 5천㎡ 등으로 오디토리엄, 전시장, 중·소회의실, 외국음식점, 쇼핑센터 등 부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광주시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의수(60) DJ센터 사장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컨벤션센터들이 일제히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도 왜소했던 DJ센터를 보완해 줄 제2컨벤션센터는 시급하다"며 "제2컨벤션 건립으로 광주가 호남권 전시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식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81-222-8100